

한 부자의 형제들

흔히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비교의 대상이 없어 가늠하기가 상당히 모호하고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대상(끝)을 깊음에 견주어 ‘바다’에, 높음에 견주어 ‘산’에 두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말 그대로 “끝이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어디쯤 있다고 가늠할 수 있을까요? 아니 끝은 가늠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필자의 생각에는 잘만하면 끝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자의 생각대로 이하 끝을 한 번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옳고 그름은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자의 주관적(신앙적)인 시각이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만석지기 ‘한 부자’라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셈이 빠른 무척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는 따지기 좋아했고 무엇이든 확실히 되짚기를 좋아했던 그런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그에게는 수하(手下)에 ‘나 사로’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한 부자’와는 달리 하루해 넘기기가 버거웠을 정도로 모든 생활이 무척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씀씀이만큼은 누구보다도 너그럽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는 ‘나 사로’의 경제적 무능을 속내에 두고 이내 그를 내쫓을 심산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곧 하루의 품삯을 쌀 한 톨로 치고 이후로 그의 품삯을 날의 승(乘, (쌀 톨)²)으로 쳐서 셈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면 내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동시에 만약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곡간에 쌀이 떨어질 때까지 그를 자신의 수하에 둘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접한 ‘나 사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쫓기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는 ‘나 사로’가 이 같이 나오리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제안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사로’ 또한 그도 며칠만 참고 지내면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로 자신을 내쫓지 않은 ‘한 부자’를 되레 고맙게 여겨 이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자’의 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가지 기준(초밥)을 참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로라하는 달인이 만든 초밥 하나에 담긴 쌀의 개수는 대개 350톨 내외라고 합니다. 여기서 350톨을 다만 536톨로 셈 쳐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기서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한 부자’의 검은 속내(욕심)에서 비롯된 이 같은 셈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한 부자’의 입장에서는 실로 감당하기 힘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째까지 ‘나 사로’가 품삯으로 받은 쌀 톨 개수를 하나하나 셈하여 보겠습니다[이하 괄호 안은 일수(日數)입니다].

“1(1), 2(2), 4(3), 8(4), 16(5), 32(6), 64(7), 128(8), 256(9), 512(10)”

보시다시피 10일째에 이르러 ‘나 사로’는 달랑 초밥 하나를 목구멍에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실로 무시무시하게 급진전됩니다. 곧 30일째에 이르러서는 초밥으로 환산하기에 그 양이 10만개가 넘어서게 됩니다. 이후로 ‘한 부자’는 ‘나 사로’를 우리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곡간에 채워진 모든 곡식을 ‘나 사로’에게 품삯으로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024(11), 2,048(12), 4,096(13), 8,192(14), 16,384(15), 32,768(16), 65,536(17), 131,072(18), 262,144(19), 524,288(20), 1,048,576(21), 2,097,152(22), 4,194,304(23), 8,322,608(24), 16,777,216(25), 33,554,432(26), 67,108,864(27), 134,217,728(28), 268,435,456(29), 53,687,912(30)”

이러한 셈이 앞서 필자가 이야기 했던 끝의 가늠이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같은 ‘한 부자’의 욕심이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에 대하여 또 다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증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기록을 꼼꼼히 되새겨 보는 중에 추상같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올바른 의미를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앞에서 비유했던 ‘한 부자’와 ‘나 사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르고 계신 비유에서의 이름과 매한가지로 똑 같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눅 16:19-21)

여기서의 ‘나 사로’는 앞선 ‘나 사로’와 처지가 남다릅니다. 곧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개가 상처 난 자신의 몸을 핥고 있음을 볼 때 말입니다. 기록에서는 ‘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렀다고는 하나 그도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더럽고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나 사로’와 겸상(兼床)을 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나 사로’는 대문 밖에 버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나 사로’는 대문 밖에 ‘한 부자’가 먹다 버린 음식물 찌꺼기 더미를 뒤져가며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아야 할 것은 ‘한 부자’는 결코 ‘나 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부자’와 ‘나 사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눅 16:22-23(상)]

이후 그들 모두는 수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죽어 각각의 믿음에 따라 ‘한 부자’는 지옥(음부)에 ‘나 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곧 ‘나 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Abraham)의 품에, ‘한 부자’는 음부의 고통 품에 각각 안기게 됩니다. 또 다시 여기서 바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었다고 비유하셨을까요? 이유는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눅 16:23(하)-24(상)]

음부의 고통 중에 ‘한 부자’는 교활하고 쾌락무도하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주위사람들은 커녕 대문밖에 버려진 채 그것도 상처 난 몸의 현대를 개가 핥고 있었던 ‘나 사로’를 모른 채 내버려 두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처지를 동정해 달라고 교활하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을 빌미삼아 자신 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일말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자 아브라함의 자비(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이 같은 교활하고도 쾌락한 ‘한 부자’의 심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술 더떠갑니다.

“나를 공홀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눅 16:24(하)]

기록에서 ‘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공홀히 보아 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그도 그럴 듯한 애원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홀히 보아 달라’는 이면(裏面)에는 음흉한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나사로를 보내어’라는 말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곧 ‘한 부자’는 그때까지도 ‘나 사로’를 일개 천한 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한 부자’가 전면(前面)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내세워 두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비를 비집고 들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렇다면 ‘나 사로’는 죽기 전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아브라함(아버지)과 자신(아들)의 종으로 취급하여야 함을 넘기지 말바닥에 깔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종이었던 ‘나 사로’를 보내(종처럼 시켜서) 그 손에 물을 찍도록 하여 자신에게 가져오게끔 명령 아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한 부자는 “나 사로여, 나를 공홀히 보아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한 부자’는 자신의 암울한 처지만을 앞세워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허물고자 함에 검은 속내를 드러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한 부자’의 패악한 심사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눅 16:25-26)

그렇다면 ‘나 사로’는 무엇 때문에 천국에 이르렀고, ‘한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에 빠졌을까요?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로 보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겠지요. 결국 ‘나 사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자였다고 볼 수 있고, ‘한 부자’는 다만 그 공로를 자신의 부와 안일에 두었던 자였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에서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코 이곳(천국)에서 저곳(지옥)으로 오고 갈 수 없다는 추상같은 말로 ‘한 부자’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자’는 극악무도하게도 또 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눅 16:27-28)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 사로’를 종처럼 취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곧 ‘나 사로’를 시켜서 자신의 집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죽기 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에 거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 5명에게 지옥의 참담한 현실을 ‘나 사로’로 하여금 똑똑히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행여나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 부자’의 속내에는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왜 천국과 지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냐는 지탄 섞인 불만을 감춰두고 있음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불만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추상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눅 16:29-30)

위 기록에서 아브라함은 ‘한 부자’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말씀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있다가 끝내 지옥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야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한 부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자’는 또 다시 항변하기에 이릅니다. 곧 지옥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게 될 요량이면,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에 따라 결단코 지옥에 또 다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로 극악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언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처사로 보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해보기에 ‘한 부자’의 말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도 보여 질 수 있겠지만, 이하 아브라함의 마지막 대답을 들어보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눅 16:31)

설령 ‘한 부자’의 말대로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어 또 다시 보여주고 알려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믿지 않을 자’는 결단코 ‘믿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성경의 기록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이 같은 답변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셀 수 없이 많고 많습니다. 한정된 지면상에 낱말을 모두 끄집어내어 밝힐 수는 없고, 다만 이 지면에서는 그 중에 일부로서 한 가지 명백한 사실(증거)만을 예로 들어 아브라함의 답변을 입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마 28:09-15)

막달라 마리아(Maria Magdalena)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떨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명령을 좇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부리나케 달음질하게 됩니다.

한편 이 사실을 곁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경비병들은 그들 또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하게 되나,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한 장로들은 서로 공모하여 경비병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끔 그들을 입막음하기에 이릅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입막음해 두었던 것이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에, 이 같은 입막음이 자신들의 입지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처방이었다면 그들 경비병 모두를 죽여 후환을 없앴어야 했을 텐데 그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후로 이러한 입막음의 효과는 끝까지 합구된 채로 이어져, 곧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끝이곧대로 전해져,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똑똑히 바로 보아 알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자’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려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경비병들이나 제사장들 나아가 유대인들은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믿지 않을 자’는 결단코 ‘믿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 자’이라는 아브라함의 답변이 추상같이 바로 서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필자는 앞에서 한 가지 사실(예수님의 부활)만을 들어 ‘한 부자’의 패악함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했으나, 답답한 가슴을 달랠 길이 없어 몇 가지를 더 늘어놓고자 합니다. 홍해(Red Sea)와 요단강(Jordan Riv.)을 갈라도, 여리고(Jericho)성을 일순에 무너뜨려도, 벳 호론(Beth Horon) 언덕에서의 해가 기브온(Gibeon)에서 달이 아얄론(Aijalon) 골짜기에서 멈추어 서게 해도, 땅을 갈라 고라(Korah)당을 스올에 빠뜨려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요 11:01-12), 오병이어(五餅二魚)의 이적을 보여도(마 14:14-21, 막 06:34-44, 눅 09:12-17, 요 06:05-13),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도(요 02:01-11), 베데스다(Bethesda)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포함하여(요 05:01-09), 문둥병자(마

08:02-04, 막 01:40-45, 눅 05:12-16), 중풍병자(마 09:02-08, 막 02:03-12, 눅 05:18-26) 등의 병을 고쳐주어도, 애초에 믿지 않을 자들이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더니 믿었습니까? 들려주었더니 믿었습니까? 어렵 반 풀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비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은 들췌치고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믿지 않을 자들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귀에서 빼낸 금 고리를 각출(醵出)하여 이를 녹여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향해 자신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고까지 칭송하지 않았던가요?(출 32) 그러한 수많은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했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것도 모자라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대고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며 회롱해대지 않았던가요?(눅 23:32-38)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갑시다. 그렇다면 ‘한 부자’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0억? 아니면 100억? 그도 저도 아니면 1000억까지였을까요? ‘한 부자’ 욕심의 끝은 다름 아닌 ‘하나님까지’였습니다. 곧 끝은 하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간에서 흔히 이르기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게 되는 셈입니다. 곧 쾌락무도하게도 저들이 ‘하나님까지’ 이르고자 하는 심사가 욕심의 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필자가 앞에서 남겨두었던, 곧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되실 것’이라고 했던 것으로 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었다고 비유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부자’를 지목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 부자’의 본래 이름으로서 ‘옛 뱀, 사탄, 마귀’(Old Serpent, Satan, Devil)를 지목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곧 마귀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또한 미약하고 연약하며 무지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하셨던 예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19:24, 막 10:25, 눅 18:25). 여기서 부자는 ‘한 부자’의 이름입니다. ‘한 부자’는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자신에게 형제가 5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그 형제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교만(驕慢), 한 탐욕(貪慾), 한 죄악(罪惡), 한 불신(不信), 한 음란(淫亂)”

그들 계보(系譜)의 조상은 다름없이 ‘옛 뱀, 사탄, 마귀’(Old Serpent, Satan, Devil)가 되는 셈입니다. 결단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한 부자’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자[‘한 교만(驕慢)’], 끊임없는 욕심에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한 탐욕(貪慾)’], 한씨 일가 형제들의 죄를 변명하고 덮어두고자[‘한 죄악(罪惡)’], 하나님의 말씀위에 자신의 지위를 걸어두고자[‘한 불신(不信)’], 세상의 정욕을 좇아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고자[‘한 음란(淫亂)’] 안타깝게 애쓰고 있는 ‘믿지 않을 자’들을 대할 요량이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기록에 비추어 ‘나 사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 사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필자의 생각에는 아마도 이 땅위에서 ‘한 부자’처럼 기를 쓰고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한 부자’의 후세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자신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 ”

“오십 의인 중에 5이 부족하다면 ... ”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 ”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 ”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 ”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 ”(창 18:23-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3억의 외제차라고요? 골프연습장이 딸려 있는 고급빌라라고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전원주택이라고요? 연봉이 자그마치 12억 원이라고요? 이글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면 끝까지 말입니다.

흔히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비교의

대상이 없어 가늠하기가 상당히 모호하고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대상(끝)을 깊음에 견주어 ‘바다’에, 높음에 견주어 ‘산’에 두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말 그대로 끝이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어디쯤 있다고 가늠할 수 있을까요? 아니 끝은 가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끝을 낚낚하고도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까지’가 그 해(解)입니다.